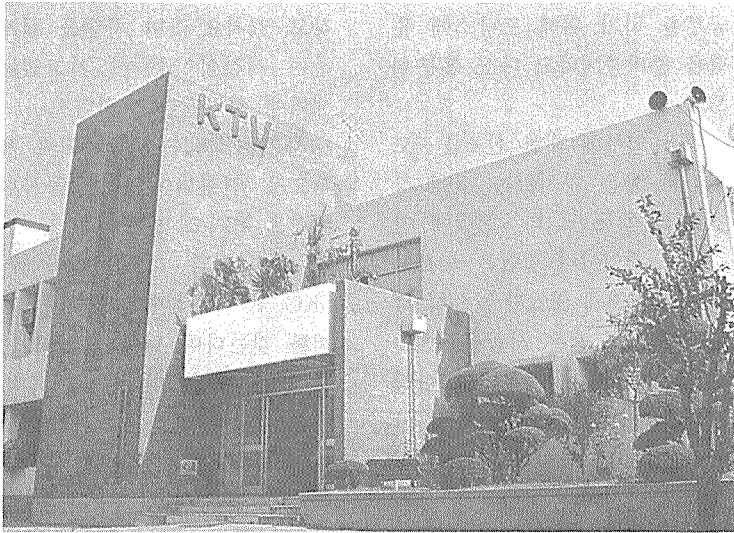


업체탐방 / (주) KTV



상 호 : <주> KTV
 韓國테크노벤처研究所
 대표이사 : 金 文 圭
 본 사 : 서울 구로구 구로동
 1124-41(JS B/D)
 연 구 소 : 서울 구로구 구로동
 188-12 (한국수출
 산업공단본부 내)
 주요사업 : 연구개발(R&D),
 하드웨어 개발,
 컨설팅, FA System,
 OA System, HA
 System, 정보화
 교육센터 운영 등
 설 립 일 : '85. 12



代 表 理 事
 金 文 圭

(주)KTV와 한국테크노벤처연구소는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정보 테크놀로지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기술의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이다.

구로구 구로동에 본사와 한국수출산업공단내에 연구소가 위치한 同社는 '85년 12월 창립, 현재 종업원 150여명, '90년도 매출액 30억원, '91년도 매출액 목표 '91억원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분야만 해도 10여개가 넘는다.

'85년 창립 당시 한국테크노벤처연구소로 출발한 同社는 '88년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한국전자통신연구소)되었고, '90년 5월에는 중소기업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同年 12월에는 기술선진화업체(상공부)로 지정되었다.

현재 10여개가 넘는 同社의 주요사업분야를 살펴보면

- 업무전산화, 공장자동화 시스템 개발·판매 및 컨설팅
- 특수 컴퓨터 제조·판매
- 제조업체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

- 정부로 부터의 자동화 및 Software의 위탁연구
- 주택자동화 제어시스템 개발 및 판매
- 컴퓨터 자동화에 관한 교육훈련 사업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사업분야를 갖게된 이유에 대해 金文圭 代表理事는 “사실 우리와 경쟁을 하고 있는 다른 외국에는 사설연구소가 많이 있지요. 우리가 사실 그들에게 뒤지는 이유가 생산관리나 기술관리에 대한 인식부족 및 연구에 미흡하기 때문 일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에서는 교육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단계에 까지 도달했지만 중소기업은 교육에 대해 아직도 미비하다고 생각되어 교육훈련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하는 쪽으로 즉 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분야로 회사를 발전시키게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同社는 주요개발실적을 자랑하는데 그동안 공장자동화 실현으로서 공단내 12개 제조업체를 선정, 자동화를 착수하여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으며 뉴욕 국제발명대회 은상을 수상한 비밀 버튼식 도어록, 병원이나 사무실에 사용이 편리한 홈 오토메이션 자동커튼 개폐기,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오피스시스템 및 할로겐 램프용 Power Supply 등 현재까지 수십가지의 제품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연구소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200개 정도의 개인연구소가 존재한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기술의 선진국이라 하는 일본도 앞지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개체기계의 자동화단계를 떠나 각공정마다의 이송간 공정관리의 표준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라고 金文圭 代表理事는 앞으로의 기술개발이 중요함을 피력했다.

DID (Democracy, Information, Distribution)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정보를 공유, 합리적인 배분을 기초로 결코 안정적이고 나태한 기업이 아닌 모험으로 도전하는 의지로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同社는 '91년을 새로운 도약의 해로 정했으며 조만간 연구소와 본사를 한곳으로 합쳐 통합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전종업원의 바람이라는 (주)KTV, 한국테크노벤처연구소는 앞으로의 우리나라 전자산업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 틀림없어 보였다.

